

# 패션 컬렉션 메이크업에 나타난 하위문화스타일 메이크업 특성

김지량\* · 최현숙

대경대학 뷰티 디자인학부 강사\*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 요약

최근의 패션문화는 다양화·개성화 되고 있는 현대문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패션 디자인 요소들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스타일의 이미지 역시 복잡하고 다양화 되었고 그 미적 범주도 더욱 확장되고 있다. 특히, 메이크업은 의복에 비해 단시간 내에 변화와 변형이 가능하여 이미지 형성에 이어 매우 중요한 세부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패션컬렉션에서의 하위문화스타일은 다양한 모습들이 혼합된 형태로 표현되어 왔으며, 하위문화스타일의 전폭적 힘이 상당함을 밝혀주고 있다. 하위문화스타일이 주류문화와 혼합되면서 메이크업에서도 그 형태나 표현 방식이 혼재 되어 나타남을 보여주는 분석이 부족하며 이미지의 정립이 모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확립된 하위문화스타일 특성들이 1930년대 주트(zoot)스타일 이후 실제 메이크업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먼저 고찰 하고, 하위문화 메이크업들이 21세기(2000년대 이후) 패션컬렉션메이크업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패션 문화 연구에서 특정 스타일이 시대를 관통하며 재등장 하고, 재등장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형태로 재해석 되어 보이는 현상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패션문화 및 이의 세부적 분야인 메이크업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울러 조망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위문화는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표현의 부분의 바탕으로서 그 스타일 표현에서의 메이크업이 현재의 패션 컬렉션에서 작용하는 형태가 다양하게 적용되므로 이를 고찰해 봄으로써 새로운 패션 트렌드 형성의 한 부분에 작용할 수 있다.

주제어: 하위문화, 패션 컬렉션, 컬렉션 메이크업, 메이크업

## I. 서론

패션 스타일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개인과 소속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해준다. 다양화·개성화 되고 있는 현대문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현대패션은 패션 디자인 요소들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스타일의 이미지 역시 복잡하고 다양화되었고 그 미적 범주도 더욱 확장되고 있다. 최근의 패션문화는 의복과 함께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액세서리 등 부가적인 복식 요소들의 전체적 조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특히,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은 의복에 비해 단시간 내에 변화와 변형이 가능하여 이미지 형성에 이어 매우 중요한 세부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요소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대중문화를 읽어 내는 복식 기호로서의 중요성 역시 증가 하였다. 그 중 메이크업은 개인의 내면과 외적인 부분을 조화롭게 표현하여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회적인 지위나 직업, 신분을 표시하기도 하고 사회내의 역할과 개성, 사고방식, 가치관 등을 알 수 있는 심리적 지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뷰티 메이크업에 국한되었던 패션 컬렉션 속의 메이크업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아트적인 요소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가운데, 패션 컬렉션의 부수적인 요소라는 틀을 깨고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패션 컬렉션 메이크업은 메이크업에 유행의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단순히 외형적 요소만 아름답게 꾸미는 차원이 아니라, 의상,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잡화 등 토탈패션의 한 요소로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가치관, 기호, 상황 등을 표현하는 도구이며, 자신이 속한 사회, 문화와의 교류를 의미하는 차원으로 확대시킨 개념으로 간주된다. 또한 의상 디자이너들이 제시하는 스타일과 조화 또는 부조화의 미로 형태나 소재 등에 있어서 창의적인 역동성을 보여 주

기도 한다. 실제로 현대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경향을 보면 주제에 부합하는 메이크업에 더욱 초점이 모아져 내추럴 메이크업부터 실험성이 강한 아트메이크업 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이전까지의 부유층 위주의 사회문화가 대중 소비력의 신장과 함께 대중 자신의 삶과 예술적 행위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게 됨으로써 하위문화가 발전하였다. 하위문화의 발전은 반 패션운동에 영향을 미쳐 주류패션에 대한 하나의 대립 축을 형성하여 하나의 스타일로 변화 되었고, 하위문화스타일은 일반대중에 의해 모방되어 하나의 패션스타일로 정착하게 되었다.

기존 연구결과들은 패션컬렉션에서의 하위문화 스타일은 다양한 모습들이 혼합된 형태로 표현되어 왔으며, 하위문화스타일의 영향력이 상당함을 밝혀주고 있다. 하위문화스타일이 주류문화와 혼합되면서 메이크업에서도 그 형태나 표현 방식이 혼재 되어 나타남을 보여주는 분석이 부족하며 하위문화스타일의 메이크업도 현대의 패션 컬렉션 메이크업에서 적용시킴으로써 다양한 트렌드 이미지의 연구개발에 효율적인 정보 활용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패션 컬렉션에서 하위문화스타일은 발생 당시의 정신적 개념 보다는 그 형태적인 면에서 디자이너의 창작의 바탕이 되고 있으며, 하위문화 발생 당시의 메이크업 스타일 또한 현대 패션 컬렉션에서 패션 스타일적 디자인표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 컬렉션 메이크업에 나타난 하위문화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먼저 패션 컬렉션 메이크업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고 메이크업의 구체적인 변천사를 하위문화스타일 개념을 도입하여 고찰한다. 또한 패션 컬렉션 메이크업의 특징을 파악한 후 하위문화스타일과 비교 분석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로 하위문화

스타일의 특성과 개념 정립과 유래를 고찰하기 위해 관련 단행본 및 선행 연구 자료를 사용하였고, 패션 컬렉션 메이크업이 시각적 대상임을 인지하여 패션 컬렉션 지와 잡지, 인터넷 패션 관련 사이트를 이용하였다. 연구의 시대적 범위로는 하위문화스타일의 고찰을 위해서는 하위문화의 발생시기인 1930년대에서 1990년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그 결과를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패션 컬렉션 메이크업과 비교 분석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현대의 패션 컬렉션에서 하위문화스타일의 특징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개성적인 디자이너의 표현 방식의 한 요소가 되기도 하고, 토털 코디의 표현 방식의 한 요소로서도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 또한 하위문화스타일은 주류 사회 패션 스타일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 영감의 원천으로 활용되어 패션문화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데 공헌하고 있다. 21세기 패션 컬렉션에 표현된 메이크업의 특성들에 하위문화스타일이 어떠한 변화와 작용을 하는지 그 관련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 1. 하위문화스타일의 개념 및 특성

패션은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과 미학적 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존의 사고와 새로움 사이의 모순이 있을 때 그 모순들을 표면화함으로써 긴장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는 새로운 미의식이 등장하여 사회, 문화, 예술 뿐 아니라 패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향중하나로 21세기 전환기를 통해 하위문화와 하이패션 사이의 스타일의 경계가 더욱 희미해지고 있음을 들 수 있다.<sup>1)</sup> 1990년대에 이후 하위문화적

인 절충주의라는 현재의 유행을 대표하는 옷을 창조하기 위해 하이패션 브랜드의 옷과 스트리트 스타일의 아이템이 자유롭게 섞이고 있다. 하위문화에서 발산된 트렌드는 주류문화에 반항을 일으켜 왔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의 취향, 라이프스타일, 패션, 음악, 그리고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위문화스타일적인 미적 특성은 종래의 획일화된 패션의 패턴을 깨고 새로운 미의식을 자극하여 패션에서의 다양화, 세분화를 촉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위문화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체계로서의 하위문화는 하나의 사회적 세계나 공유된 시각을 가진 집단을 말한다. 둘째, 명시적인 삶의 스타일로서의 하위문화는 하위문화집단구성원들의 공유된 스타일이 있고, 그를 통해 가시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공통의 스타일을 통해 하나로 결속되고 그 집단만의 정체성을 향유한다. 셋째, 행동 체계로서의 하위문화는 타문화와 자신들 간의 경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응집력 있는 체계를 말한다. 넷째, 비주류 집단은 자신의 집단이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주목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안다. 이상에서 제시되는 조건들은 하나의 이념형이기 때문에 현실의 하위문화들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sup>2)</sup>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이전까지의 부유층위주의 사회문화가 대중 소비력의 신장과 함께 대중 자신의 삶과 예술적 행위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게 됨으로써 하위문화가 발전하였다. 하위문화의 발전은 반 패션운동에 영향을 미쳐 주류패션에 대한 하나의 대립 축을 형성하여 하나의 스타일로 변화되었고, 하위문화스타일은 일반대중에 의해 모방되어 하나의 패션스타일로 정착하게 되었다.

의복, 외모, 음악, 행동을 통해 표명되는 스타일은 집단의 존재와 응집력을 표현하는 유희한 방법이며, 많은 경우 스타일은 하위문화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자 특정한 하위문화를 설명하는 역할

을 한다.<sup>3)</sup> 하위문화구성원이라는 것은 개인에게는 자유를 제공하고 삶의 형태, 성, 정치적 측면에서의 자유를 부여한다. 즉, 지역적, 사회적, 그리고 스타일에 경계를 정해줌으로써 하위문화는 주류문화 내지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스타일은 하위문화 정체성의 중심이며 의복과 신체 장식은 같은 구성원들에게의 충성과 세상으로부터의 자의적인 소외를 상징한다. 하위문화스타일을 패션보다는 스타일과 동일시하는 것은 그 클래식함과 영원성뿐만 아니라 ‘나’보다는 우리를 상징하는 의복의 사회적인 기능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본 논문에서의 하위문화의 개념은 기존의 문화에서 타인으로부터 집단의 범주 문화를 지칭하며, 그 구성원들은 부분적으로라도 공유되는 경험의 영역을 가지며 일반인들과는 차별성을 드러내는 스타일을 가진 집단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 2. 패션 컬렉션 메이크업의 개념 및 특성

메이크업은 자신의 내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을 조화롭게 표출시켜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해 내는 미화적인 역할을 해준다. 또한 사회적 지위나 직업, 신분을 표시하고 사회적인 예의를 표현하는 사회적 역할과 그 사람의 성격이나 사고방식, 가치 추구 등을 알 수 있는 심리적인 역할을 해준다.

메이크업은 페인팅(painting), 토일렛(toilette), 드레싱(dressing) 또는 프랑스어의 마꾸이쥬(Maquillage) 등으로 표현되며, 우리나라 에서는 보통 화장으로 번역된다. 화장을 하는 얼굴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부위로서 화장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변신하는 것과 두 번째는 치장으로서의 원래의 부분을 고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치장으로서의 메이크업이 유행에 가장 실험적인 정신을 들여다 볼 수 있

는 매체가 패션 컬렉션 메이크업이다.<sup>4)</sup>

문명의 상징으로서의 메이크업은 인간의 미적 본능의 원초적 표현방법이며, 나아가 그 삶의 사고방식과 행동 목적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 방법으로 발전하여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다.

현대 메이크업은 주제에 따라 여러 기법을 사용하여 재료 등에 구애 받지 않고 인간의 육체에 새로움을 추구하여 인체를 디자인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다양하여 눈, 코, 입의 형태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점에서 내적 정신과 외적 감각으로 창조되는 것을 정의되고 있다.<sup>5)</sup>

패션 컬렉션에서는 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미의식을 표현하는 트렌드가 있으며, 그것은 패션 컬렉션의 의복과 메이크업에 패션성과 유행성을 부여한 것이며, 의상, 헤어, 액세서리 등 토털패션의 요소로써 패션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의 교류를 의미하는 차원으로 확대시킨 개념의 유행과 색상이 민감하게 제시된 것이다.<sup>6)</sup>

특히, 컬렉션에서 보여주는 패션쇼 메이크업은 무대의 높이, 관객과의 거리 조명과의 색채관계, 의상의 색 의상스타일, 디자이너의 사상 등을 고려한 메이크업으로 스테이지 메이크업의 한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패션쇼 메이크업에 유행의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단순히 얼굴만 아름답게 꾸미는 차원이 아니라 의상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잡화 등 토털패션의 요소로서 자신이 가치관, 기호, 상황 등을 표현하는 도구이며, 자신이 속한 사회, 문화와의 교류를 의미하는 차원으로 확대시킨 개념이다.<sup>7)</sup>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제시하는 의상 스타일과 조화 또는 부조화의 미로 형태나 소재 등에 있어서 창의적인 역동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패션 컬렉션 메이크업에서의 추상적인 트렌드 이미지 개념을 다양한 부분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바른 트렌드 이미지 개념이 정립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21세기의 패션 컬렉션에서 하위문화 패션스타일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그 메이크업 또한 다양하게 작용하여 새로운 메이크업 트렌드 이미지 제시에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 3. 하위문화스타일과 하위문화스타일 메이크업

패션 컬렉션의 역사는 파리의 상류층에서 시작되었으며, 세계 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그러나 제 1, 2차 세계 대전의 과 경제 불황의 영향으로 경제의 중심이 영국과 미국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두 나라를 하위 문화발생의 근원지로 보고 하위문화스타일의 발생과 그 메이크업을 고찰하였다.

#### 1) 하위문화스타일

시몬 프리스는 하위문화스타일을 분석하기 쉬운 방식은 그것을 ‘거리문화(street culture)의 변용으로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sup>8)</sup> 거리문화의 주동자들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든지 거리를 점령한 폭군이였다. 기성세대나 앞선 세대가 만들어 놓은 모든 방식의 답습을 거부하면서 새로운 그들의 신문화를 만들어 내고 사고방식, 예술 형태, 표현 문화, 패션문화, 음악 등 모든 것에 있어 그들은 기존의 것과는 다른 형태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거리문화에 의해 생성된 스트리트 스타일은 1940년대 미국의 소외된 계층이었던 흑인 젊은이들에 의해 생겨난 주트스타일(zoot style)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주트 수트(zoot suit)와 화려한 액세서리를 남용함으로써 정체성을 표방했다. 그러나 하위문화는 주트 스타일에 반발하면서 발생한 검은 가죽재킷의 착용으로 대표되는 바이커(biker)와 비트(beat)로 이어진다. 1950년대에 이르러 젊은이들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하나의 독립적인 소비자

계급으로 대두되게 되었고, 이들 틴에이지(teenager)의 등장으로 진정한 의미의 하위문화스타일이 시작하게 되었다. 전쟁 후에도 전과 같이 대중문화를 움직이는 커다란 문화적 힘인 영화와 팝음악이 광고와 판매촉진 산업에 의하여 미국으로부터 세계를 향해 나왔다. 청소년들의 소비력은 미디어와 오락 산업을 젊은이들을 위한 것으로 전환하게 하고, 젊은이 위주의 문화로 만들게 하였다. 바이커는 안락한 생활을 거부하고 가죽재킷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방황하던 청소년들로 1954년 영화 『The wild one』에서 말론 브란도(Malon Brando)에 의해 완벽하게 표현되었다. 비트는 1950년대 미국사회를 거부하는 작가와 지식인들로 이루어진 언더그라운드(under ground)운동을 배경으로 형성된 그룹이다.

하위문화스타일은 1950년대 테디보이(teddy boy)에 이르러 진정한 10대의 청소년들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테디보이는 영국의 미숙련된 노동자 계층의 소비 지향적이며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한 문화이다. 이것은 1960년대 모즈(mods)나 록커(rockers)의 형성을 위한 요인을 제공해준다. 1960년대 모즈는 카나비 스트리트(Carnaby street)를 중심으로 발생한 소비지향적인 노동자 계급의 자녀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카페나 클럽의 열정적인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낮은 지위와 업무를 거부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냉철한 사고의 소유자 들이었다. 록커는 로큰롤(rock'n roll)의 인기와 함께 영국에서 발생하였는데 모즈와는 달리 소비 지향적 생활과 유행을 거부하고 공격적인 노동자 계층의 불량배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댄스와 로큰롤에 심취하였다. 1960년대 TV나 영화와 매체의 발달로 대중문화가 확산되면서 젊은이들의 우상에 대한 요구로 음악이나 예술, 문학전반에 걸쳐 대중 스타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특히 가수들은 평화를 염원하는 가사와 자유로운 사상으로 전 세계젊은이들의 선망이 되었으며,

비틀즈(Beatles)와 롤링스톤즈(Rolling Stones)는 젊은이의 문화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젊고 활발한 대중음악과 그들의 패션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이후 하위문화는 히피(hippie)와, 학교로부터 소외당하고 사회의 저변을 돌고 있던 스킨헤드(skinhead)로 이어졌다. 1960년대 후반 ‘히피문화’의 여파로 생긴 사이키델릭(psychedelic)은 음악, 예술, 패션 등에서 그전에 보지 못하던 형태를 나타내었고, 생생한 에시드(acid)적 색감과 환상적 영감으로 인해, 퇴폐적이고 환상적인 클럽문화의 모태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1970년대 킹스 로드(King's Road)를 중심으로 실업자인 노동계층의 자녀로 좌절에 대한 돌파구를 찾기 위한, 하위문화스타일중 가장 과격한 그룹인 펑크(punk) 그룹으로 나타났고, 1980년대의 엘리트 주의에 반동으로 나타난 고스(goth)로 이어졌다. 이후 하위 문화는 1990년대 컴퓨터 문화의 확산과 고도의 기술 성장을 배경으로 나타난 테크노 사이버 펑크와 다이내믹한 춤과 흑인 음악에 있어서 가장 혁명적인 표현 방식인 랩으로 표현되는 힙합에 이르게 되었다.

## 2) 하위문화스타일 메이크업

제 1차 세계대전이후 모든 여성들은 화장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고 화장품은 공공연하게 사용되었다. 1920년대 영화가 대중 오락문화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중스타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젊고 새로운 것에 대한 과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메이크업과 패션에서도 반영되어 사회적 분위기로 나타나 일반인들의 추종을 받을 만큼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했다. 일반대중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스타들의 화장 형태와 의상, 심지어는 행동이나 태도까지도 추종되고 모방되었다.<sup>9)</sup> 색깔을 대담하게 사용해서 자연스러운 화장이 아닌 인위적으로 다듬은 짙은 색깔로 그림 그리듯 만드는 화장이었다. 눈썹은 뽑아서 가느다랗

게 실날같은 초승달 눈썹을 만들고 그 위에 다시 눈썹연필로 그리고 아이새도는 비취색 또는 초록색이나 짙은 갈색이었다. 인조 속눈썹과 쿨을 아이라이너로 사용했으며 루주는 볼에 등그렇게 발랐고, 입술 화장은 또렷하고 선명하게 강조 시키고 작게 표현했다. 1930년대 메이크업은 과거보다 더 진하고 숙련된 기술로서 성숙한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화장법이 관심을 집중시켰다. 파운데이션으로 완벽하게 덮은 얼굴에 눈의 윤곽선을 선명하고 더욱 기교적으로 그렸으며, 크게 그려진 입술이 얼굴의 강조점이 되었다. 지나치게 어두운 메이크업은 인기가 없었으나 여성들은 우윳빛이나 핑크색의 볼을 더 이상 선호하지 않았으며, 새로운 이상형인 햇볕에 그을린 검은 피부를 원하였다. 눈썹은 가늘게 만들기 위해 족집게로 뽑아주고 아이브로우 펜셀(eyebrow pencil)로 그려서 아치형으로 만들었으며, 입술형태는 연지를 사용해 입술 모양을 새롭게 만들었으며, 자색에서 적황색에 이르기 까지 여러 색이 사용되었다. 이시기는 그 어떤 시기보다도 할리우드 영화에 등장하는 스타의 화장이 아름다움의 기준으로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까지 유행했으며, 배우들이 아름다움의 기준으로서 일반인들로부터 숭배를 받았다. 새 옷을 구입할 여유가 없는 빈민층 여성이라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타의 헤어스타일과 화장법은 따라 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마를렌 디트리히(Marlene Dietrich)는 연필로 그린 아치모양의 눈썹을 유행 시켰다. 인조 눈썹과 손톱이 1930년대에 발전했으며, 이것 또한 할리우드에서 기원했다.<sup>10)</sup>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많은 물품이 시장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미국은 유럽보다는 전쟁에서 비켜서 있었으므로 영화산업을 비롯한 소비산업이 호황을 누렸다. 할리우드에서는 컬러영화가 제작되면서 색조와 기능이 다양한 화장품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전쟁으로 인해 나타난 여성형은 관능적인 모습과 화장을

한 핀업걸(pin-up girl)이었다. 이들의 화장은 가볍고 신비스러운 긴 눈썹표현을 하였다. 또한 이전의 뚜렷한 입술을 강조하는 화장에서 벗어나 두꺼우면서도 여성적인 곡선을 이룬 눈썹과 아이핀슬로 눈꼬리 부분을 추켜올려 표현한 눈을 강조하는 화장이기도 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로부터 탈피하고자 하여 그들 특유의 패션과 음악, 영화, 카페 등은 젊은이들의 문화를 이루었고 이것은 1950년대부터 일반화 되었다. 미국의 팝 문화와 영화 예술 등은 특히 미국적 문화로서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1950년대까지는 영화 스타들의 모습이나 화장이 여성의 외모에 주도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였다.<sup>11)</sup>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n)은 짧은 머리 스타일과 함께 소녀 적인 이미지의 붉은 눈썹 화장법을 유행시켰고, 요정 같은 우아함으로 인정을 받았다.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아이라인을 눈꼬리를 두껍게 칠하면서 꼬리는 약간 올리고 눈썹은 두껍고 둥글게 피부는 하얗게 입술은 풍만하고 붉게 볼터치는 핑크색 계열로 나타냈다. 또한 마릴린 몬로(Marilyn Monroe)는 빨간색으로 강조된 윤기 있는 입술은 당시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아이새도는 강한 색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아이라이너를 굵게 해 끝을 올렸고 인조 속눈썹을 붙인 다음 마스크라를 많이 칠했으며, 눈썹은 두껍고 각이 지게 그렸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전환기에 가장 주목받았던 배우 브리지트 바르도(Brigitte Bardot)는 반항적인 모습과 관능적인 모습이 같이 느껴지는 것이 매력으로서 피부는 하얗고 눈썹은 여성적인 이미지가 살아나도록 자연스럽게 그렸으며 아이새도는 녹색으로 진하게 바르고 아이라이너는 길게 눈꼬리를 강조하였으며 입술은 밝은 분홍색으로 색시하게 표현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십대가 페이스 파우더를 사용한다면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겠지만, 10대들은 적당한 용돈을 받았기 때문에 1950년대에는 화장품의 사용이 어른에게만 한





정된 것이 아니게 되었다. 아이브로우의 컬러 면에서는 다소 연해지고 입술은 윤곽이 더 부드러워졌으며, 레드 계열을 칠했다.

20세기 후반인 1960년대는 젊은이의 시대로 획일적인 메이크업에서 벗어나 미에 대한 가치 개념의 변화로 다양성과 개성이 중요시 되었고 무조건 따라하는 20세기 전반기의 분위기에서 벗어난 메이크업이 나타났다. 십대들은 위해 깨끗한 피부와 풍성한 아이래쉬(eyelashes), 가짜 주근깨(false freckle), 장밋빛 볼 등이 틴에이지 스타일이 되었다. 1967년 길에서 볼 수 있는 화장은 무대화장을 모방하여 하이라이트나 새도를 해서 입체감을 강조하고 있었다. 마치 무대용 수정 화장을 하는 것 같았다. 젊음이 새로운 감성과 의식이 중시 되면서 인조 속눈썹등 극단적으로 강조된 눈이 중심이 되었고 이로 인한 화장법은 자연스럽고 사이키델릭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말의 광기어린 과도한 화장법은 1970년대로 넘어 오면서 환경이나 자연을 의식하기 시작하였다. 낮 동안은 거의 화장을 하지 않았지만 밤에는 클럽을 가기위해 글래머와 글리터를 사용하여 낮 동안의 단정함과 대조를 이루는 메이크업을 중요하게 여겼다. 댄스 열풍 덕에 영화 『그리스(Grease)』에서의 올리비아 뉴튼 존(Olivia Newton Jon)은 10대 아이돌이 되었다. 당시의 경기 침체 속의 우울한 사회분위기를 피하거나 극복해 보려는 심리가 반영되어 다양한 색조를 부여하여 성숙한 이미지의 메이크업을 하였는데, 젊은이들 사이에 나타난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핑크는 아름다움의 이상에 관한 가장 자극적인 비평으로 특이한 헤어스타일과 헤어, 손톱, 입술 그리고 눈 주위에 넓게 검은색 컬러를 칠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소름 끼치게 했는데 이것은 주로 핑크스타일의 음악을 하는 가수들에 의해 행해졌다.<sup>12)</sup> 1980년대부터는 더 이상 메이크업, 헤어, 그리고 일산의 액세서리에 국한 되지 않은 토털 코디 룩이 생겨났다. 여권신장으로인해 사회에

서 자연스럽게 남성들과 경쟁하게 되면서 강한 여성  
 성의 이미지로 변화였으며, 잘 가꾼 피부색이 빛  
 나도록 아름다움과 건강을 추구하였다. 브룩 쉴즈  
 (Brooke Shields)는 1980년대의 록을 대표하는 배우  
 로서 주목을 받았고, 이밖에 복고풍의 영향으로  
 존 콜린스(John Collins)와 린다 에반스(Linda Evans)  
 같은 성숙하면서도 섹시한 할리우드 글래머 스타

일이 인기를 끌었다. 마돈나(Madonna)는 1980년대  
 와 1990년대에 가장 인기를 얻은 스타였으며, 수  
 백만 명의 여성들이 그녀의 종교적 장신구, 심하  
 게 블리치한 파마헤어와 함께 짧은 스커트와 코르  
 셋으로 된 스타일을 모방 했으며, 섹시하면서 진  
 한 화장을 유행 시켰다. 1990년대의 패션의 주요  
 키워드는 스타일 보다는 세계화였으나 슈퍼 모델

<표 1> 하위문화스타일과 메이크업 특성

스타일 년대	메이크업 특징	하위문화스타일
 (출처: 「메이크업 & 스타일 100년사」, 2001, p.64)	가늘고 휘어진 활모양의 눈썹과 아이새도는 검정으로 아이 홀을 잡고 옐로우계열이나 그레이 계열로 음영을 주며 하이라이트를 강조하였으며, 붉은색이나 어두운 자주색으로 강렬하게 연출하며 볼은 뼈 아래로 어둡게 표현하였다	 주트 (출처: 「Street Style」, 1994, p.7)
 (출처: 「20세기화장문화사」, 2006, p.117)	정교하게 눈썹을 그렸으며 입술은 뚜렷한 윤곽선을 강조하고 피부는 매트하게 표현하였다	 바이커 (출처: 「Street Style」, 1994, p.20)
 (출처: 「20세기 화장문화사」, 2006, p.140)	굵고 진하면서 처진 눈썹을 그리고 희색 또는 피치컬러로 전체를 한후 브라운으로 아이홀 메이크업을하여 입체감을 살렸으며 눈꼬리가 아몬드형이 되도록 그리고 마블린 몬로의 영향으로 점을 찍기도 했다	 테디 보이 (출처: 「Street Style」, 1994, p.26)



<표 2> 하위문화스타일과 메이크업특성

스타일 년대	메이크업 특징	하위문화스타일
1960년대	 <p>(출처: 「Haircults」, 1990, p.55)</p>	<p>개성이 중요시 되는 메이크업이 시작 되었으며, 기발한 인조 눈썹이 사용되고, 한편으로는 무대용 눈화장 같은 메이크업이 성행하고, 사이키델릭한 모습이 나타났다. 자연스러운 컬러와 이국적 혹은 민속적 메이크업이 등장하였다</p>  <p>모즈, 사이키델, 히피 (출처: 「Fashion of a decade the 1960s」, 1990, p.54)</p>
1970년대	 <p>(출처: 「Street Style」, 1994, p.28)</p>	<p>남성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내적만족감과 강하고 능력 있어 보이기 위해 짙은 눈썹을 그리고 펄 제폼으로 눈 화장을 표현하며, 입술은 선명하게 그렸다</p>  <p>핑크, 글램 (출처: 「Street Style」, 1994, p.30)</p>
1980년대	 <p>(출처: 「Fashion of a decade the 1980s」, 1990, p.16)</p>	<p>강인한 여성의 이미지가 부각되어 눈썹과 입술이 진해지고, 전체적으로 세시하면서 진한 화장을 하였다. 작은 얼굴이 유행하였고, 전문 메이크업인도 일반인들에게 메이크업을 해주었다</p>  <p>고스, 뉴 로멘틱 (출처: 「Street Style」, 1994, p.30)</p>
1990년대	 <p>(출처: 「20세기 화장문화사」, 2006, p.222)</p>	<p>자신의 눈썹 그대로를 살려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눈 전체를 베이지나 핑크로 바르고 눈꼬리 부분에 포인트는 어두운색 으로 강조하며 입술윤곽을 펜슬로 그려 자연스러움과 부드러움을 강조하였다</p>  <p>사이버테크노, 힙합, 클러버 (출처: 「Street Style」, 1994, p.45)</p>

들이 스타일을 주도 하였다. 잡지 표지에서 자신의 패션이나 메이크업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며, 더 어리고, 빼빼하게 마르고, 남자 같은 외모에 전혀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듯한 스타일을 선호 하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다시 두꺼운 화장이 나타났으나 여기에 반대하는 그런지 형태가 나타났다. 이러한 안티 패션은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에 의해 선보였는데 마치 거리에서 찍힌 것 같아 보이는 모델들이 얼굴에 질고 선명하지 않은 메이크업 조각으로 연결한 의상을 입혀서 무대에 등장 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고급 잡지들에 실리기 시작했으나, 계속 유지되지는 못했으며 전 시대의 스타일들이 재연되었다.<sup>13)</sup> 그러나 이내 투명하고 내추럴한 메이크업이 등장하게 되고, TV와 잡지에 의해 최신의 스타일을 보여주게 되고, 밀레니엄에 어울리는 아름다움의 이상을 찾으면서 개성이 부각되었고, 세계의 패션과 모델들을 통해서 미학적인 안목을 넓혔다.

20세기 후반은 전반기와는 달리 대중문화를 움직이는 커다란 문화적 힘인 영화와 팝음악이 광고와 판매촉진 산업에 의하여 미국으로부터 세계를 향해 나왔다. 청소년들의 소비력은 미디어와 오락 산업을 젊은이들을 위한 것으로 전환하게 하고, 젊은이 위주의 문화로 만들게 하였다. 시각적인 면이 강한 메이크업은 영화와 함께 20세기 이후 하위문화스타일메이크업은 음악으로도 그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가수를 모방하는 면도 강하게 나타났다.

<표 1>, <표 2>는 하위문화스타일과 하위문화스타일 메이크업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 III. 패션 컬렉션 메이크업에 나타난 하위문화 메이크업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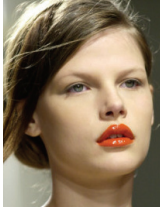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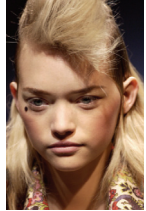
오늘날의 대부분의 제반 현상들은 분야별로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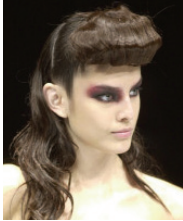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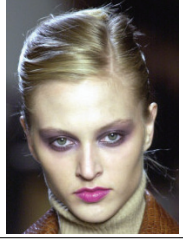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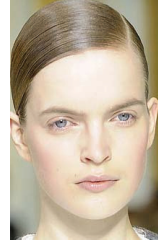
각의 트렌드가 있으나 패션스타일의 변화와 관련된 패션 트렌드가 모든 트렌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패션 컬렉션은 패션 트렌드와 관련하여 전반적 패션 스타일 경향과 특성을 살펴 볼 수 있으며, 최신 유행을 창출하고 있다.<sup>14)</sup> 이러한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전해주는 패션 컬렉션은 의상과 더불어 메이크업과 헤어, 액세서리 등의 전반적인 요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여준다. 패션 컬렉션에서 연출되는 메이크업은 디자인이나 색채뿐만 아니라 발상자체에서부터 다양한 이미지가 시도되는 자리로 이를 중심으로 매 시즌의 새로운 메이크업 트렌드가 완성된다. 2000년대 들어와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으며 과거의 메이크업이 패션컬렉션에서 부수적인 요소라는 틀을 깨고 아트적인 요소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요소의 메이크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패션 컬렉션에서 그 비중이 중요함이 인식 되었다.

2000년대의 초반의 컬렉션 메이크업은 웰빙의 강조와 함께 자연스러운 건강미를 나타내는 내추럴한 메이크업이 주도 했으며, 밀레니엄 시대에 맞는 현대적인 감성의 글로시한 메이크업과 미래 지향적인 메이크업도 함께 나타났다.<sup>15)</sup> 그을린 듯한 피부 표현을 위해 어두운 색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였고, 필을 사용하여 글로시한 건강미를 돋보이게 하였고 다양한 컬러의 혼합과 디자인, 오브제의 사용으로 실험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현재에는 촉촉하고 윤기가 흐르는 듯한 피부나 도자기처럼 매끈한 느낌보다는 잡티 없이 맑은 피부 톤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눈과 입술을 동시에 강조하여 글래머러스한 메이크업을 하기도 했으며, 회화적 느낌이 강한 아트 메이크업이나 컬러풀한 색상을 사용하며, 다양한 텍스처와 선과 면을 활용하여 개성 강한 디자이너들의 작품세계를 메이크업에도 반영하게 되었다.

패션 컬렉션 메이크업에서 하위문화스타일 메이크업은 초반과 후반에 상관없이 다양하게 등장

<표 3> 컬렉션 메이크업에 적용된 하위문화 메이크업

	하위문화스타일 메이크업의 특징	2000년대 컬렉션 메이크업	
193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는 아치모양 눈썹</li> <li>- 자색 등의 짙은 입술</li> </ul>		
		크리스찬 디올 2007 F/W 컬렉션 (출처: <a href="http://www.firstviewkorea.com">http://www.firstviewkorea.com</a> )	크리스찬 디올 2008 F/W 컬렉션 (출처: <a href="http://www.firstviewkorea.com">http://www.firstviewkorea.com</a> )
194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술 강조</li> <li>- 약한 눈썹 아치</li> <li>- 매트한 피부빛과 결집 커버</li> </ul>		
		폼테 가르송 2006 F/W 컬렉션 (출처: <a href="http://www.firstviewkorea.com">http://www.firstviewkorea.com</a> )	트루사르디 2001 S/S 컬렉션 (출처: <a href="http://www.firstviewkorea.com">http://www.firstviewkorea.com</a> )
195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꺼우면서도 곡선을 이루는 눈썹</li> <li>- 눈꼬리 부분 강조,</li> <li>- 뷰티 스팟</li> </ul>		
		요지 야마모토 2004 F/W 컬렉션 (출처: <a href="http://www.firstviewkorea.com">http://www.firstviewkorea.com</a> )	존 갈리아노 2008 S/S 컬렉션 (출처: <a href="http://www.firstviewkorea.com">http://www.firstviewkorea.com</a> )
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겹의 마스카라</li> <li>- 인조속눈썹</li> <li>- 이집티안메이크업</li> <li>- 환타지 아이메이크업</li> </ul>		
		장 폴 고티에 2006 F/W 컬렉션 (출처: <a href="http://www.firstviewkorea.com">http://www.firstviewkorea.com</a> )	존 갈리아노 2009 F/W 컬렉션 (출처: <a href="http://www.firstviewkorea.com">http://www.firstviewkorea.com</a> )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래머와 글리터사용</li> <li>- 펠과 광택 강조</li> <li>- 펑크 스타일</li> </ul>		
		알렉산더 맥퀸 2002 S/S 컬렉션 (출처: <a href="http://www.firstviewkorea.com">http://www.firstviewkorea.com</a> )	크리스찬 디올 2004 S/S 컬렉션 (출처: <a href="http://www.firstviewkorea.com">http://www.firstviewkorea.com</a> )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뚜렷한 눈썹</li> <li>- 내추럴 스타일</li> <li>- 강한 여성 이미지</li> <li>- 고스 스타일</li> </ul>		
		빅터 알파로 2000 F/W 컬렉션 (출처: <a href="http://www.firstviewkorea.com">http://www.firstviewkorea.com</a> )	말레한드로 델라쿠아 2009 F/W 컬렉션 (출처: <a href="http://www.firstviewkorea.com">http://www.firstviewkorea.com</a> )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메이크업 스타일들을 재현.</li> <li>-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듯 한 내추럴한 메이크업.</li> <li>- 다양화, 세분화 되어 재료와 기법등에 구애 받지 않는 메이크업</li> </ul>		
		크리스찬 디올 2006 S/S 컬렉션 (출처: <a href="http://www.firstviewkorea.com">http://www.firstviewkorea.com</a> )	발렌시아가 2010 F/W 컬렉션 (출처: <a href="http://www.firstviewkorea.com">http://www.firstviewkorea.com</a> )

하였다. 2007 S/S 컬렉션과 2008 F/W 컬렉션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패션 컬렉션에서는 창백한 피부 톤에 눈썹을 가늘고 길게 그리고 눈썹 꼬리가 약간 처진듯하게 인위적으로 그려서 30년대의 메이크업의 특징을 보였으며, 2001 S/S 컬렉션 트루사르디(Trussardi)와 2006 F/W 컬렉션 콤포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등의 패션 컬렉션에서는 1940년대의 특징인 아치형 눈썹과 진한 립스틱으로 메이크업의 특징을 보였으며, 2004 F/W 컬렉션 요지야마모토(Yoji Yamamoto)와 2008 S/S 컬렉션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등에서는 1950년대의 하위문화 메이크업 스타일인 눈꼬리 부분을 강조

하고, 얼굴에 점을 찍는 등의 메이크업 스타일을 보였으며, 2006 F/W 컬렉션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tier)와 2009 F/W 컬렉션 존 갈리아노의 패션 컬렉션에서는 여러 겹의 마스크라를 하거나 인조 속눈썹과 무대화장 같이 환타지한 메이크업의 1960년대 메이크업의 특징을 보였으며, 1970년대의 글래머러스하게 글리터를 사용하여 펠과 광택을 더욱 강조하고 눈에 검은 칠을 한 메이크업은 2004 S/S 컬렉션 크리스찬 디올과 2002 S/S 컬렉션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등으로 예를 들 수 있다. 1980년대의 강한 여성의 이미지와 진한 화장 등은 2000 F/W 컬렉션 빅터 알파로

(Victor Alfaro)와 2009 F/W 컬렉션 알레한드로 델라쿠아(Alessandro Dell'Aqua)등의 패션 컬렉션에서 보인다. 1990년대의 메이크업은 밀레니엄에 의한 다양한 사회적 특성과 재료와 기법 등에 구애를 받지 않게 되면서 여러 가지 메이크업을 재현하여 반복되어짐이 보이며, 다양화 세분화 되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더 풍부하게 표현되어 졌다.

다음 <표 3>은 하위문화스타일 메이크업의 특징을 바탕으로 2010년 이전의 패션 컬렉션 메이크업에서 하위문화스타일이 메이크업이 적용된 사례이다.

#### IV. 결 론

1900년 초반 까지는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저속하다고 생각되어져 왔으나 여성들이 내실에서 화장을 해왔었고, 제 1,2 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경제적 불황이라는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도 빈민층 여성이라도 좋아하는 스타의 화장법은 쉽게 따라 할 수 있었다. 여성들이 화장을 하는 것은 불확실하고 어두운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1950년대 이후 경제적 상황이 극복 되면서 청년들의 소비력이 늘어나면서 미디어와 오락산업을 젊은이들을 위한 것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레코드, 화장품, 잡지 등으로 인해 영화 스타들의 화장이 메이크업 스타일을 주도하였다. 1960년대에는 반문화적인 이데올로기의 대두로 인해 주류문화에 대해 도전하고 패션의 취향이 부유한 소수가 아니라 거리의 남녀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어 전통적인 미인과는 거리가 먼 미인의 독특한 모습에 새로움과 특이함을 느껴 선풍적 인기를 누리게 되고, 기이하거나 민속적 패턴이 메이크업에 등장했다. 1970년대에는 성의 관념을 깨뜨리며 남자도 화려한 화장을 하고 창백한

메이크업에 검정계열의 아이섀도우와 립스틱을 바르는 등의 외관상 문명 파괴적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80년대 초 댄스영화의 영향으로 다양한 컬러와 필을 사용하여 화려함을 강조했으나 마돈나의 영향으로 육감적인 화장이 유행하였다. 1990년대에 새로운 밀레니엄에 어울리는 아름다움의 이상을 찾으면서 개성이 부각되었으며, 마르틴 마르지엘라에 거리의 진한 메이크업 스타일이 고급 잡지에 실리기도 했으나, 곧 자연스러움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재발견하게 되었으며, 트렌드에 맞추어 새로운 모습으로 보이길 원했다.

하위문화스타일은 주류패션이 아닌 소수문화의 패션스타일로서 현대에도 다양하게 재해석되고 재현됨으로써 디자이너의 개성을 나타내 주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의 요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그들의 메이크업도 자연스럽게 재해석 되어 사용되어 진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이후에는 하위문화스타일은 서로 절충 주의적이고 우연한 방법으로 대중매체에 보이는 이미지들이 넘쳐남으로써 서로 다른 시대들이 역사적 연속성 없이 배치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스타일의 혁신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면서 어떤 아이디어나 특징이 인용되거나 모방되는 혼성모방(pastiche)의 양상을 띠게 된다. 그러나 패션 컬렉션 메이크업은 의상과는 달리 피부 표현과 이미지를 재창조하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서 과거의 메이크업과의 절충적인 면 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도를 함으로써 패션 컬렉션의 디자이너의 디자인적 영감의 표현에 부합되어지는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 잡고 있다.

패션 컬렉션 메이크업에서 하위문화스타일의 메이크업은 또한 하이패션의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미의식에서 벗어난 하위문화스타일의 미적 특성은 종래의 획일화된 표현의 개념을 깨고 새로운 미의식을 자극하여 패션이 더욱 다양화, 세분화 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메이크업 형태의 단순한

모방이 아닌 현대에 맞는 새로운 감각의 패션과 메이크업으로 창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러 흐름의 절충주의 성격을 띠어 한 스타일의 절대적이고 정형화된 수용이 아닌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스타일 양상을 띠고 있었다.

토탈 코디네이션에 의한 전체적인 이미지 창출이 중요시 되고 있는 현재의 패션 트렌드에 하위문화스타일은 디자이너의 표현의 한 요소로서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다양하게 연구하고 이미지가 정의 되어 왔으나, 메이크업의 추상적인 표현 방식의 특성상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패션 스타일처럼 연구되어지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매해마다 트렌드의 제시와 신소재의 개발, 문화적 사조의 변화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지고 있는 패션 스타일에서 아름답고 예술적인 메이크업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 메이크업의 추상적인 스타일 이미지 개념을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키기 위한 이미지 개념 정립이 더욱 절실하다.

## 참고문헌

- 1) 임은혁 (2003). 21세기 전환기 하이패션에 나타난 하위문화스타일, 복식, 53(2), pp.71-85.
- 2) 임은혁, 김민자 (2003). 1990년대 하위문화스타일에 관한 연구, 복식, 53(3), pp.13-31.
- 3) 임은혁. 앞의 책, p.72.
- 4) 이경은 (2008). 파리 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 스타일 분석: 2001 S/S ~ 2005 F/W를 중심으로, 한국미용학회지, 14(3), pp.826-836.
- 5) 양진희 (2001).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3.
- 6) 노효경 (2006). 21세기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색채표현 특성, 코리아뷰티학회지, 2(1), pp.21-31.
- 7) 최은지 (2000). 아방가르드 패션을 위한 메이크업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8.
- 8) 김영인, 김신우, 김정신, 김희연, 송금옥, 이연희, 이현주, 조애래, 주미영, 한은주 (2006). 록 패션을 보는 아홉 가지 시선, 서울: 교문사, p.65.
- 9) 김지희, 정윤희, 황윤정 (2006). 20세기 화장문화사, 서울: 경춘사, pp.78-79.
- 10) Valerie M. and Amy de la haye (1999). 20세기 패션, 김정은 옮김 (2003). 서울: 시공사, p.98.
- 11) 김지희, 정윤희, 황윤정. 앞의 책, p.135.
- 12) 이정민 (2008). 현대메이크업에 나타난 고스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지, 4(1), pp.59-67.
- 13) 김지희, 정윤희, 황윤정. 앞의 책, p.228.
- 14) 김미현, 이유나 (2008). 2008 ~ 2009 F/W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집, 8(12), pp.151-159.
- 15) 이희중, 구자명 (2006). 2000년대 전반기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 7(1), pp.105-125.

## Characteristics of Subculture Style Makeup in Fashion Collections

Kim, Ji Lyang<sup>+</sup> · Choy, Hyon Sook

Lecturer, Division of Beauty Design, Taekyeung College<sup>+</sup>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 Abstract

Fashion collection makeup has fashionable significance. It not only decorates the external appearance beautifully, but also expresses the values, preference and situation of the makeup artist as a factor of total fashion which includes clothes, hairstyle and accessories, and is considered a concept that is expanding to the level of exchanging elements of society and culture. Subculture style is expressed through a mixture of different features, and existing research results reveal the significance of the power of subculture styles. However, there is a lack of analysis on expression methods of makeup mingled with mainstream culture, and thus subculture makeup has an obscure image. Since modern fashion collection makeup adopts the makeup of subculture styles, it will be helpful to use the information efficiently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various trends. Subculture is a background of creative expression for designers, and since the various types of makeup styles are applied to current fashion collections, studying this area can help establish a part of new fashion trend.

Key words: subculture, makeup, collection makeup